



잇! 브뤼셀 축제 모습.

/서울시

청년셰프의 한식, 벨기에에 입맛 사로잡다

미식축제 '잇! 브뤼셀' 참가

한국 청년들이 벨기에 대표 미식 축제인 '잇! 브뤼셀(eat!BRUSSELS)'에서 한식을 알렸다. 서울시는 6~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미식 축제에서 청년 셰프 4명이 한식 팝업 키친을 열고 8가지 요리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잇! 브뤼셀(eat!BRUSSELS)은 브뤼셀시가 매년 여는 미식 축제로 올해 7회를 맞았다. 해외 주요 도시와 현지 셰프들이 팝업 키친을 열고 자신의 창작 요리를 선보이는 행사다.

올해 12개 해외 도시에서 각 1팀이 참가했고, 브뤼셀 셰프 20명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해 우호 도시협정을 맺은 브뤼셀의 초청으로 이번 축제에 참석하게 됐다.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한 청년 요리사

는 ▲김민지(31살, 덴마크 〈노마(Noma)〉, 국내 〈밍글스〉 출신) ▲김희중(28살, 벨기에 〈헤르토그 얀(Hertog Jan)〉, 영국 〈레드버리(The Ledbury)〉 출신) ▲정재호(25살, 오스트리아 〈타우벤 코벨(Taubenkobel)〉 출신) ▲서태성(25살, 오스트리아 〈다스 김치Das Kimchi〉 근무 중), 총 4명이다.

청년 셰프들은 5첩 반상에서 칙안한 채식 도시락, 임금님 수리상에 올랐던 연자 육찜, 떡갈비 등 우리 음식을 고급스럽게 담아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유럽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한류 콘텐츠가 음식, 패션·뷰티, 케이팝인 만큼 서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청년예술가 해우 씨의 '리얼시리얼' 매장 외관 전(좌)과 후(우) 모습.



/서울시

동네 점포에 개성만점 '예술작품' 써운다

서울시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서울시는 예술작품으로 점포를 개성 있게 바꾸는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가게 전담예술가는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청년예술가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간판, 벽화, 인테리어 개선 등 공간 리모델링을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청년예술가 31명과 동네가게 27개가 협력해 점포별 맞춤 변화를 시작한다. 시는 회화, 디자인, 공예 등 예술 분야를 전공한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일대일로 매칭해 운영한다.

독산동 '한신세탁소' 간판은 청년예술가의 손길을 만나 동네 명물이 됐다. 연남동 '리얼시리얼'은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아트마케팅 사례로 수록됐다.

사업에 참여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 결과물에 대한 견적을 분석한 결과, 외주업체에 맡겼을 때보다 평균 70%가 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결과물에 대한 점포주의 만족도도 높았다.

시는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디자인·에디팅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한 점포주의 반응과 결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운영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내일 '세계망명정부와 임시정부' 심포지엄

서울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종로타워에서 '세계망명정부와 임시정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정부와 현법의 근간이 되는 임시정부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치와 법통을 세계 망명정부와 임시정부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밝히는 학술 행사다.

행사는 1919년 9월 11일 상해·한성·리시아 연해주령 3개 지역에 설립된 임시정부의 상해 통합임시정부를 구성을 기념해 개최된다.

심포지엄 사회는 독립운동가 원종린 선생의 후손인 원동욱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를 맡는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승인·의 국제정치: 미·중과 '임정'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현정 기자

승차거부 택시 강력 퇴출한다 서울시, 자치구 처벌권한 회수

자치구 처분율 11.3% '대처 미흡'
자격정지·취소 등 신분상 처분 단행
택시기사 '삼진아웃제' 철저 적용

서울시가 승차를 거부한 택시에 철퇴를 가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으로 전부 환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 데 이어 다산콜센터 등으로 민원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전부 회수한다.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 승차거부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그동안 택시 회사에 대한 1차처분(60일 사업정지)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해왔다.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민원신고건 처분율은 11.3%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 권한을 회수해 처분율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자치구로부터 현장 단속 처분 권한을 회수해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높인 바 있다. 해당 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례〉

-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 빙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당초의 예약 목적지가 변경되어도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야 함)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한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

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2명이나 됐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복수율은 100%를 달성했다. 환수 전 3년 간 평균 처분율은 48%였으며,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불과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함께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단행할 방침이다.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는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한다.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증거자료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을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metroseoul.co.kr

세종대로, 혹한기 전까지 주말엔 '차 없는 거리'

10~16일 '차 없는 주간'으로 지정
시민걷기 행사·체험부스 등 마련

이번 주 일요일, 서울 세종대로에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16일을 '차 없는 날'로 정하고, 10~16일을 차 없는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차 없는 날은 1997년 프랑스 항구도시 라로쉐에서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맙시다"는 시민운동으로 시작됐다. 현재 전 세계 47개국 2000여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다. 시는 2007년부터 매년 '차 없는 날'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세종대로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단, 종로로 동서 방향 차로는 정상운영된다.

교통통제는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시 청~세종대로사거리~종로1가~을지로입

구~송례문~시청 구간에서 11시 10분부터 12시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행사에는 시민걷기, 기념식, 친환경등급제 라벨 붙이기, 폐현수막을 활용한 대형그림 그리기, 무동력퍼레이드, 환경문화제, 40개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오전 10시부터는 각 자치구 시민실천단 등 환경단체 회원이 시청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걸어서 행사장에 모이는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오전 11시에는 신청사 서편 도로에서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이 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위원장, 윤정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전기차·수소차에 친환경등급 라벨을 붙이는 퍼포먼스와 함께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폭 24m의 대형 스케치북에 핸드프린팅으로 그림을 그리는 공연이 진행

된다.

따릉이, 외발자전거·리큅먼트바이크 등 이색자전거,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등 다양한 무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한 무동력 퍼레이드도 펼쳐진다.

행사는 환경문화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오후 4시 30분부터 풍물패의 길놀이가 진행된다. 버블쇼 공연, 패션쇼, 환경마당극 등도 준비됐다.

올해 차 없는 날 행사에는 병풀 아리수를 제공하지 않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차 없는 날 행사에는 광화문부터 세종대로 까지 차가 없어진 도로에서 시민들이 맘껏 걷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북한산 대성문 보수 완료·개방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폐쇄했던 북한산 성 대성문의 보수를 완료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대성문은 해발 약 626m, 북한산성의 동남쪽에 위치한 성문이다. 창덕궁과 북한산성을 이어주는 가장 가까운 통로이다.

성문 하부에는 유품(문루 하부의 석재로 쌓은 부분)을 쌓고, 흥예(아치형의 출입구 부분) 모양으로 통로를 내 성문을 달아 여닫을 수 있도록 했다. 상부에는

군사를 지휘하고 성문을 지키기 위한 단층의 문루가 있다.

시는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북한산성 대성문의 전면 해체·보수를 결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문을 폐쇄했다.

대성문은 육축부와 흥예부의 석재 간 틈이 벌어지고, 문루의 마루와 기둥 부식이 심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안전과 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성문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문루의 목재는 최대한 기존 목재를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45%를 다시 사용했다. 기와는 전량 신재를 사용했고, 단청도 새롭게 단장했다. /김현정 기자